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폐쇄 추진…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물류·운송 등 연관 산업 줄도산에 관련 종사자 200여명 실직 우려
1984년 설립 내년 3월 폐쇄 예상…사측의 일방적 소통방식도 문제

롯데칠성음료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광주시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 광주공장 폐쇄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984년 기동을 시작해 40년 넘게 지역 향토 사업장 역할을 해온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직접 고용 인원뿐 아니라 물류와 운송 등 연관 산업까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음료 산업 성장세둔화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광주공장과 경기도 광주 오포공장 등 2곳의 기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롯데칠성은 안성, 오포, 대전, 양산, 광주에 6곳의 음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 군산, 충주 등에 3곳의 주류 공장을 기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 광주공장은 대지면적 7만2700여㎡(2만2000평, 건물 2만1000평) 규모로 1984년 설립됐다. 칠성사이다를 비롯한 탄산음료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광주와 호남 지역 물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연간 매출액은 330억원 규모에 달하며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등 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외주 경비와 물류, 운송 등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200여 명의 생계가 이 공장과 연결돼 있다.

사측의 이번 결정은 엔데믹 이후 음료 소비가 줄어든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창혁 롯데칠성 광주공장 노조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음료 산업이 최근 꺾이는 추세라 회사 측에서 생산 라인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와 오포 공장을 닫는 대신 다른 지

역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3조 3교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장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직원들이 겪게 될 고용 불안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이 아닌 타 지역 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가 현재 생활권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표는 “광주공장 직원 30여 명 중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가족 전체가 이주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결국 제발로 나가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측은 지난 3일 노조 집행부에 공장 폐쇄 계획을 전달했으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사측은 노조와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장 폐쇄와 인력 재배치는 노사 합의 사항임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시도하려 해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제조업 기반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광주공장은 그동안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신제품 시범 생산 등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적 가치를 증명해 왔다. 이러한 핵심 시설이 사라지면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는



1984년 설립돼 40년 넘게 조업해온 광주시 북구 양산동 롯데칠성 광주공장. 대지면적 7만2700여㎡ 부지에 조성된 이 공장은 칠성사이다 등을 생산하며 호남 지역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물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22일 롯데그룹 임원진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 경영 논리만 앞세워 40년간 터를 닦아온 지역을 떠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며 “단순한 공장 폐쇄 통보가 아니라 광주시와 롯데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막아야 한다”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기관 청렴도, 광주시 ‘2등급’ 약진… 전남도 ‘4등급’ 뒷걸음

보성군, 전국 유일 3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는 웃고 전남도는 울었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2등급, 전남도는 1계단 하락한 4등급에 머물렀다. 기초자체 중에서는 보성군이 서울 광진구와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된 평가를 받으며 1등급인 경북, 충남 등에 이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해 4등급에 그쳤다.

시·도 교육청은 똑같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계단이나 내려앉아 4등급으로 떨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년과 동일한 4등급에 머물렀다.

지방의회 평가에서는 전남도의회도 한 등급 내려와 2등급을 차지했고,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이 2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에서는 북구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북구는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으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됐다.

동구, 서구, 남구는 나란히 3등급을 기록했다. 서구는 전년보다 1계단 상승했고, 동구와 남구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광산구는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4등급을 받아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초의회 청렴도에서는 집행부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광산구의회와 남구의회, 동구의회가 나

란히 2등급을 달성했다. 북구의는 3등급으로 상승했고, 서구의회는 3등급을 유지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보성군과 해남군의 선전이 돋보였다.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해남군도 2계단 상승하며 1등급 대열에 합류했다. 담양군과 진도군은 2등급을 유지하며 상위권을 지켰다.

시 단위에서는 목포시가 1계단 상승해 3등급을 받았으나, 순전시는 1계단 하락해 3등급을 기록했다. 나주시와 광양시는 4등급으로 평가됐고, 여수시는 2계단 하락하며 최하위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 장흥군, 함평군이 등급을 끌어올리며 3등급을 기록했고, 무안군도 2계단 상승해 3등급으로 올라섰다. 반면 구례군, 신안군, 완도군, 화순군은 4등급에 머물렀다.

전남 기초의회 중에서는 보성군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첫 상업용 발사체 ‘한빛-나노’ 비행 도중 낙하

이노스페이스, 기체 이상…안전 구역 내 추락 피해없어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쏘아 올린 첫 상업용 발사체 ‘한빛-나노’(HANBIT-Nano)가 비행 도중 기체 이상으로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우주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3일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나노는 이륙 후 약 30여 초 만에 비행 궤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이날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나노는 이륙 후 약 30여 초 만에 비행 궤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발사체는 통제 센터의 판단에 따라 비행을 중단하고 지상 안전 구역 내로 낙하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추락 지점이 사전에 확보된 안전 구역 내부에서 인명 피해나 발사장 시설 파손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비록 위성 발사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지만 기술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국내 민간 기업의 첫 상업 발사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박설현 조선대 우주기술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민간 사업체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시장이 크지 않다”며 “고체 연료와 액체연료 중간 사이 하이브리드 타입의 기술을 사용한 만큼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무산되지만 누리호에 이어 진정한 발사체 민간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로 응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본인 확인 한번 더…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폴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날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 실

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폴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 밝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롯 밝은 신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1월 18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월드오토파츠
(WORLD AUTO PARTS Co.,Ltd.)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가길 3

청간인 양 시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1월 18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주식회사 글로벌오토파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가길 3, 라동 201호

청간인 양 시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5년 12월 23일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80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총수 80,000주 중 30,000주를 회양하는 주주로부터 매수 유상증액하려고 80,000주를 5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주는 본 회사에 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본 회사에 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현대아이콘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성군 광성면 광순로 2068

대표이사 서재홍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